

200자 안내

꿈꾸는 종이인형

이용숙 지음

외교관의 아내이면서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대학교수로서의 바쁜 역할을 무난하게 해내고 있는 저자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산뜻하게 그려낸 수필집. 외교관 남편을 따라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등지를 체류하면서 각 나라의 여성들이 품는 독특한 분위기와 생활을 관찰한다. 저자가 가장 주목한 대상은 어머니, 딸, 직업여성 순이고 이들을 통해 여성일반의 삶과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삶과꿈 / A5신 / 246면 / 5600원

왜 이혼 못하는가

장순순 지음

여성학자인 저자가 이혼한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학력별, 이혼사유별로 나누어 취재하고 이혼으로 인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여성과 이와 달리 건강한 삶을 되찾은 9명의 사례들을 엮었다. 저자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과 이혼 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 이혼한 여성들이 현실적, 심리적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기술한다. 또한 여성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결혼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현민시스템(주) / A5신 / 400면 / 6500원

日本業界地圖

오오소노 도모카즈 지음 / 이정현 옮김

기업합병과 계열화 등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일본기업의 최근 양상을 중심으로 복잡한 일본의 경제구조를 설명한다. 일본의 6대 기업집단부터 21세기형 산업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기업계열을 90항목에 걸쳐 알기 쉬운 도표로 엮어 일본 업체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분야와 아울러 우주, 환경, 실버 비즈니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도 도식화했다. 보다 현실감있는 이해를 위해 각 기업명의 고유명사는 일본 현지발음으로 표기했다.

서울기획 / A5신 / 200면 / 6000원

백전기략

유기 지음 / 강창구 엮음

이 책의 원전 「百戰奇略」은 명나라 건국공신 중의 한사람이자 병법에 있어 제갈공명과 쌍벽을 이뤘다는 유기(1310~1375)가 춘추시대부터 전해온 중국 병법중에서 중요항목 100개만을 발췌한 병법서. 전쟁원칙의 상재성을 시사하는 100개 항목의 원칙과 그 사례로 삼국시대를 비롯한 중국 역사의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책은 유기 「百戰奇略」의 전모를 잘 드러내면서도 현대전쟁에도 이 병법을 응용, 해설해 현실감을 보여준다.

문화문고 / A5신 / 394면 / 6800원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배창돈 지음

목사인 저자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 쓴 책으로, 생활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말씀이 가져다 주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특히 초신자와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마음속의 예수와 생활속의 예수를 동시에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내용이다.

말씀과만남 / A5신 / 160면 / 3500원

중국민화

김명수 지음

어린이들에게 중국에 관한 흥미있는 얘기거리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그들의 고유문화를 알려준다. 중국의 풍토성과 고유성, 그리고 그 민족의 지혜와 전설이 담겼으며 중국의 남방지역을 비롯한 몽고초원, 중동지역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수록했다. 내용중에서 ‘왕노릇하는 여우’는 인간의 교만을 질타하는 교훈이며 ‘용왕과 피리부는 사나이’는 절제와 분수를 지킬 것을 말한다. 그외에도 중국인들의 꿈을 반영한 ‘대추씨’ ‘목마’ 등이 있다.

공동체 / A5 / 286면 / 4500원

풍화의 세월

조동선 지음

제4회 MBC문학상 당선작으로 한 이민가족의 가족사를 통해 여전히 학대와 차별속에서 있는 재일교포들의 삶을 다룬 장편소설. 강제징용돼 역사의 격동을 겪은 1세대들과 지남달인, 민단과 조총련간의 대립 등 일본에서의 법적 지위와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갈등문제를 안고 사는 2세대들, 그리고 민족성이 변질된 채 일본인화 되어가는 또다른 세대들의 모습이 들어있다. 주인공 민수는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일본 사회에서의 취직을 거부당한다. 그는 또 사랑하는 여자가 중군위안부의 딸임을 알고 헤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들 상일은 취직문제로 귀화하고 일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한다.

신원문화사 / A5신 / 304면 / 5000원

唐代文化史叢說

변인석 지음

이백과 두보, 양귀비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의 문화를 재미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서술했다. 미인들이 즐겨 찾던 화청궁의 활수온탕, 안록산의 기병 장소로 전해지는 독락사,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불교미술의 보고 용문석굴, 장보고가 세운 적산촌 법화원 등 흥미있는 이야기와 역사가 한데 얽혀있는 문화유적들이 소개된다. 수차례 중국을 방문한 저자가 문화답사기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 책을 통해 당대 문화 전체를 개괄해 볼 수 있다.

한울아카데미 / A5신 / 250면 / 8000원

김성철의 고쳐 쓴 한국 역사

김성철 지음

민족주의자이자 사학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저자가 일본식 역사교육으로 말미암은 그릇된 역사관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새로이 쓴 역사책. 역사에 관한 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던 저자의 시각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대변해 주는 한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선책 / B6신 / 272면 / 3800원

테헤란路의 사람들

이재욱 지음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즐비해 한국의 맨해튼 혹은 신주쿠라고 불리는 강남의 테헤란로에 뛰어난 한 사나이의 성공담을 그린 소설. 30대 중반의 한영우는 허영심 많은 아내로부터 이혼당하지만 테헤란로에서 건설회사를 세워 재기에 성공한다. 한영우 외에도 테헤란로가 “황금의 땅”이 될 것을 예견하고 “돈무지개”를 쫓아나선 사람들중에는 강남에선 어느 곳이든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동산업자, 부산 출신의 주먹계 인물, 강남 룸싸롱의 여사장 등이 등장한다.

다름원 / A5신 / 334면 / 5800원

삼성과 자동차 산업

허상수 지음

삼성의 자동차산업의 신규 진입 논쟁과 정래한 책. 국내 유수의 자동차업체인 현대, 기아, 대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실태와 현황이 들어있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빠질 수 없는 부품공업, 그리고 세계 주요 자동차 대국의 동향을 정리해 국내의 자동차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장이 주장한 ‘삼성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입장’을 소개해 삼성이 자동차사업에 진출하려는 이유와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새날 / A5신 / 304면 / 6000원

키 큰 판사와 키 작은 아이들

신평 지음

사법부 개혁에 관련된 글을 기고한 뒤, 현행 헌법시행 후 법관 제임용에서 탈락한 저자가 사법부 내에서의 갈등과 제임용 탈락 후 변호사로 개업하기까지의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엮었다. 공교롭게도 11개월의 짧은 터울을 두고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아이를 보면서 판사라는 직업에서 느낀 심각한 회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열어나가는 아버지의 입장도 기술하고 있다. 이 일기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면직됐던 판사직 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부끄러움없이 살아가는 삶이 소중함을 일깨운다.

문이당 / A5 / 280면 / 5000원

수다가 아닌 대화가 그리웠던 날들

선우미정 지음

루이제 린저의 작품 ‘생의 한가운데’에 등장하는 주인공 ‘니나’에게 큰 감동을 받은 저자가 적극적인 삶을 위해 떠난 독일 유학에서 체득한 새로운 문화와 독일인의 모습을 담은 책. 남다른 용기를 갖고 시작한 독일 생활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학교제도며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 유럽 여러 곳의 풍경과 문화를 스케치하고 있다. 거침없는 선택과 인생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자의 모습이 들어있다.

지성사 / A5신 / 272면 / 5400원

라틴아메리카 지리

이전 지음

라틴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현실에 초점을 맞춰, 지리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전역을 다루면서도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론서. 라틴아메리카 지리의 총괄적인 이해를 위해 각 장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제2장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토착문화를 다루고, 제3장에서는 유럽인들의 진출과정을 중심으로, 아메리카의 발견과 정복, 식민지화 그리고 독립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한다. 그밖에 토지제도·인구·인종·언어·종교 등 전반적인 문화를 총괄한다.

민음사 / A5신 / 276면 / 8000원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MBC 교양제작국

MBC에서 부부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의도에서 ‘나의 내조기’란 제목으로 공모했던 논픽션 수기를 엮음. 총 25편의 수기가 수록되었으며 각 편마다 뜻하지 않게 다가온 자신의 불행과 당당히 맞서 마침내 작은 행복을 얻어내는 아내들의 치열한 목소리가 들어있다.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과 결혼의 참된 의미를 되

새겨 보게 한다.
명서원 / A5신 / 238면 / 4500원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윤청광 지음
열 여섯살에 출가해 스물 다섯살 되던 해, 만공선사로부터 선종 77대 법맥을 전수, 전법계를 받은 전강 큰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작품. 내용에는 도반의 갑작스런 죽음에 무상함을 느껴 시작된 참선수행과 해몽, 해월, 보월, 만공선사 등을 찾아 인가를 받는 운수행각, 그후 당당한 법력과 지혜들을 보여주면서 중생교화에 헌신한 구도행각이 드러나 있다. 전강 큰스님은 자기 실험만이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문화 / A5신 / 284면 / 5000원

한말 일제하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 엮음
갑오농민전쟁과 함께 시작했던 한말 일제하에서의 민족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흐름을 조명한 논문집. 제1장은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한말 개화파의 방식을 일본 도막파와의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제3장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민족 독립운동의 특징을 국내, 국외로 나눠 각각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제4장은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하면서 일제와 맞섰던 김교신의 사회사상을 재조명한다. 마지막 제5장은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정신대문제와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군 위안부 정책을 다룬다.
문학과지성사 / A5신 / 336면 / 7000원

우리 시의 상징성 연구

신진 지음
“한 편의 시는 언어적 구조체”이며 “시에 쓰인 모든 수사법은 상징적 구조체를 위해 봉사하는 단위”라고 주장하는 저자가 우리 시의 상징체계를 연구한 이론서. 제1부는 언어적 상징구조체에 대한 기본적 체계를 정지용의 시해석에 적용해 현대시의 상징체계를 새로이 한 논문이다. 제2부는 김수영, 윤동주, 청록집 3인의 시에 나타난 상징체계의 바탕과 그 특징을 해석하고, 제3부에선 1978년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연시, 자연시 중심으로 우리 시의 심리적 성향을 탐색한다.
동아대학교출판부 / A5신 / 336면 / 7000원

격월간지

녹색평론 (94년 5~6월)

▲쌀과 魂(김성훈) ▲무한경쟁 시대와 노자(이현주) ▲풍수비판에 대하여(최창조) ▲북

한 핵문제 교착의 근본원인(이상성) ▲과학기술로 환경문제가 해결 가능한가(이필렬) ▲세상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가(권정생)
[시] ▲팔공산 골프장의 1편(배창환) ▲山西日記(안도현)
[자동차 사회의 극복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공생의 기술(나리나 싱) ▲작은 행성을 위한 차(마르시아 라우) ▲서말 구슬이라도(전성용)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서형숙) ▲되찾은 靜寂-자전거를 위하여(볼프강 작스)
[서평] 삶의 위기와 지역화의 비전-김찬호·오테민 지음 「여백의 질서」(이임호)
녹색평론사 / A5신 / 168면 / 3300원

반년간지

시대와 철학 (94년 상반기)

[특집] 마르크스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가? ▲실천적 역사유물론의 옹호(이상훈) ▲총체적 역사성에 대한 부정-카스토리아디스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양운덕) ▲역사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의 재구성-마르크스와 하버마스를 비교하는 한 관점(장춘익)
[논단]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Apologia Sokratous)”의 분석(이정호) 애사기의 역행철학 비판에 관한 연구(이철승)
[시론] 교통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정운광)
[윤구병의 존재론] 있음과 없음
[한국사상가 평전] 김옥균(김중명)
[해외철학동향] 현대프랑스 사회철학의 동향(이기현)
[서평]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박정호)
동녘 / A5신 / 224면 / 5000원



창과 욕에서 창과窓에서

創造力을 발휘할 편집인을 찾습니다.

편집인 모집

자 격: 1964년 6월 이후 출생자로 편집경력 2년 이상의 남녀이면 됩니다.
대 우: 출판사 평균 급여 보다 많습니다.
분 야: 학습지, 단행본, 경영서적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FAX 혹은 서신으로 제출)
서류제출 기한: 1994. 6. 15일까지

창과 창 출판사는 창조인을 위한 적극적 窓이 될 것입니다.

경력 모집

자 격: 1971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출판 경력경력 1년 이상의 여상고졸 출신
대 우: 출판사 평균 급여 보다 많습니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FAX 혹은 서신으로 제출)
서류제출 기한: 1994. 6. 15일까지

도서출판

창과 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용지빌딩 206호 전화 569-0908, 562-5747 FAX 566-2784